

아시아 국가 민주화 아픔 마음으로 씻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마임캠프
26일~27일 5·18민주광장
한국·태국 등 12개팀 참여
전통무용·서커스 등 공연도

세계 마임리스트들의 퍼포먼스와 다채로운 공연을 1박 2일에 걸쳐 즐기는 마임 한마당.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019아시아마임캠프'가 26일 오후 6시부터 27일 밤 11시까지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 슬로건은 '아시아아 씻자 - Wash up, Asia!'로, 아시아 국가들이 민주화를 이루며 받았던 아픔과 슬픔을 씻어낸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태국, 라오스 등 아시아 각국의 마임리스트 포함 12개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오브제마임, 판토마임, 요요저글 등 마임 공연뿐 아니라 전통무용, 서커스 등 다양한



지난해 열린 '프린지아시아마임캠프'에서 해외 마임리스트가 선보인 마임 공연 모습.

장르의 공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그들 '남북맛집선언'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실을 냉면에 빗대 표현한 마임 공연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를 선보인다. 제압과 구속에서 비롯된 고통을 몸으로 표현하는 팀 '박골박스'의 년

비벌퍼포먼스 'Resistances', 요요를 돌리며 관객과 호흡하는 문현웅의 'Yo-yo circus' 공연도 펼쳐진다.

정승천 무용가가 고통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정승천의 허튼 병신춤', 박소산 무용가의 '심학무' 등 전통무용 공연과 안

재근의 'Story circus', 김주영의 '모기' 등 서커스 무대도 이어지며, 팀 '플레이밍 파이어'의 불쇼 '태양의 조각'도 무대에 오른다.

해의 공연팀이 펼치는 공연들도 눈길을 끈다. 라오스의 극단 '체오봉'은 자연물, 생활용품 등을 활용해 숲의 정령을 묘사하는 오브제마임 공연 '라오스의 나무에서'를 선보이고, 일본 전통예능공연팀 '센와카'는 일본 전통음악에 맞춰 전통예능 '엔게이' 공연 중 하나인 '다이카구라(극예)' 쇼를 펼친다. 일본 마임리스트 야마모토 코요는 마술, 인형극을 섞은 코미디 판토마임 'KOYO 판 라이브'를 공연하며, 태국 마임리스트 알리노는 저글링과 마술을 결합한 'Alino Street Show'를 무대에 올린다.

배우와 관객 모두가 한 데 모여 민주광장 일대에서 퍼레이드식 퍼포먼스를 즐기는 '난장 퍼레이드'도 26일 오후 8시, 27일 밤 9시 30분 두 번에 걸쳐 펼쳐질 예정이다. 문의 062-223-0410.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미래 평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조동희 미수전 다음달 1일까지 동구 갤러리 D



'무궁화 향연'

올해 미수(米壽)를 맞은 월봉 조동희 작가는 건축가 출신이다. 전남대 공대를 졸업하고 1959년 현대건축설계사무소를 설립한 그는 광주 금남로의 첫 현대적 건물인 전일빌딩을 설계했다.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한 그는 '무궁화 작가'로 불릴만큼 나라꽃 무궁화를 소재로 50년간 다양한 작품을 그려왔다.

월봉 조동희 작가 미수전(米壽展)이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광주시 동구 갤러리 D에서 열린다.

나라꽃이자 성경도 등장하는 무궁화는 상징하는 게 많다. 흰 무궁화의 꽃잎은 순결, 붉은 부분은 십자가의 고행을 뜻하며 종교적인 사랑과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작가가 열정을 쏟아 아온 무궁화 작품 40점을 만나 볼 수 있다. 다양한 색감이 어우러져 무리지어있거나, 홀로 피어 있거나 한반도를 가득 채운 모습 등 다양한 형상의 무궁화 작품들에는 "미래에는 평화와 번영으로 하나 되어 함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작가의 마음이 담겼다.

1984년 한국을 방문한 교황 바오로 2세가 그의 무궁화 그림을 구입한 것을 계기로 '무궁화 작가'로 불리게 됐으며 청와대, 국립현대미술관, 마백약관 미국 시애틀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문의 062-222-801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29일 피크뮤지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찾아오는 '뽕만드는 공연 김원중(사진)의 달거리' 공연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지홀에서 열린다.

107화째를 맞는 이날 공연의 주제는 '화양연화'.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듯 권세·영화는 영원할 수 없다는 말 '화부십일홍'과 달리, 꽃이 지면 새 꽃이 피듯 꽃나무 전체를 보면 화려하고 빛나는 순간의 연속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은 김원중과 기타리스트 박성언이 협연 무대를 갖고, 주홍 화가가 샌드애니메이션 공연을 펼친다. 클래식 테마, 크로스오버, 퓨전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이는 재즈 그룹 '강윤숙의 재즈여



행',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 밴드 '우물안개구리' 등이 출연한다.

입장료는 감동후불제로 진행된다. 문의 010-3670-5802.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강연으로 만나는 '라파엘로와 샤갈'

27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관장·전승보)은 토요일 문화 이벤트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 두번째 행사를 오는 27일 오후 3시 미술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아트 스토리 105대표·사진)씨는 이번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1부-라파엘로 산치오와 마르크 샤갈'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613-71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마동욱 사진전' 8월 1일까지 탐진강 야외전시실

댐 건설로 수몰돼 고향을 잃어버린 장흥군 유치면 사람들의 모습과 그곳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마동욱 작가 사진전 '탐진강이 흐른다'가 26일부터 8월 1일까지 탐진강 둔치 야외전시실에서 열린다.

정남진 장흥물축제 기간에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1994년부터 장흥댐 건설로 수몰될 마을을 찍은 사진 50점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대해 마 작가는 "탐진강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탐진강의 아픔을 말하고 싶었던 전시"라며 "수몰지역 사람들의 이야기와 물 속에 잠긴 마을과 강변의 변화 등을 담은 작품을 선별했다"고



'장흥을 탐진강 고기잡이'

말했다. 장흥 출신으로 교도관, 소방관 등으로 재직했던 마 작가는 젊은 시절 도시로 떠났다가 1988년 고향으로 내려오며 마을을 찍기 시작했다.

장흥군 419개 마을 사진을 촬영했으며 1997년 장흥댐 수몰 지역을 담은 사진집 '아, 물에 잠긴 내고향'을 펴내기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백제 성왕(재위 523~554) 시기 은제 관식.

나주서 백제 풀 모양 은제 관식 출토

"성왕때 지배층 무덤"

나주 송제리 고분에서 6세기 초반 혹은 중반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은제 관식(冠飾)이 발견됐다. 관식은 관모에 부착하는 장식으로 백제 지배층 고분에서 주로 나온다.

웅진사비도읍기 백제지배층 전유물로 평가되는 은제 관식은 더러 출토되기는 했지만, 종래 유물이 꽃 모양 일색인 것과는 달리 풀 모양이라는 점에서 이채롭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전남기념물 제156호인 송제리 고분에서 훼손고분 기록화 사업으로 추진한 발굴조사 결과, 백제 성왕(재위 523~554) 시기 은제 관식과 은제 허리띠 장식, 청동 잔, 말갈춤, 호박 옥 등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물 출토 양상을 근거로 연구소는 송제리 고분이 6세기 전반 백제 왕실 지배층 무덤이라고 주장했다.

송제리 고분은 1987년 도굴된 상태로 그 존재가 알려졌다. 2000년 석실(石室) 실측조사를 통해 평면이 사각형이며 천장이 활저럼 흰 궁륭형(穹窿形)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벽면에는 석회를 칠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말갈춤으로는 발걸이(등자)와 말에 탄 사람 다리에 흠이나 물이 튀지 않도록 안장 밑에 늘어뜨리는 말다래 고정구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동근 못머리를 은으로 감싼 관뿔이 발견됐고, 무덤 외곽의 원형 도랑에서는 제외에 사용한 것으로 짐작되는 토기 조각 200여점이 나왔다.

/연합뉴스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신양파크호텔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특별리더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